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/ 산림청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5쪽(첨부 3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7. 9.(금)	담당부서	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
담당소장	소장 정도현 (031-540-1100)	담 당 자	연구사 정상훈 (031-540-1157)

숲의 세대교체, 자연의 힘으로도 가능하다

-국립산림과학원, 「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·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」 자료집 발간-

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박현)은 자연의 재생능력을 이용하여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수종별 천연갱신 기초 메커니즘 규명 및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담은 「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·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」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.

○ 천연갱신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발아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숲이지만, 자연의 힘과 더불어 임업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산림관리를 병행해야 효율적인 산림자원 이용이 가능하다.

□ 자료집에는 입목 수확 후 천연 치수(稚樹) 발생 유도를 위한 갱신상 처리 기술과 천연갱신 시험지 조성 후 종자 유입, 치수 발생 및 생장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.

○ 특히 자료집에서는 천연갱신은 자생지 생육환경에 적응한 모수(어미나무)로부터 후계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유리하며, 수확 방법, 종자 결실, 지표 상태, 입지환경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.

○ 또한, 모수로부터의 거리가 10~15m 이내의 범위에서는 후계림 조성에

필요한 충분한 양의 치수 발생이 가능하며, 치수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생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.

□ 이번 연구자료는 수확기에 도달한 소나무 및 낙엽송림의 천연갱신을 통해 새로운 숲을 조성·관리할 수 있는 시업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“현재 후계림 조성은 묘목을 식재하는 인공조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, 천연갱신을 통해 현지 기후・입지환경에 적응된 어린나무들로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며, “천연갱신의 성공적 후계림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 확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「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・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(연구보고 21-12)」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(http://know.nifos.go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＊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> 발간자료 > 연구간행물 > 연구보고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첨부: 1.「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・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」 책자 표지
2. 소나무・낙엽송 천연갱신 사례지 전경

첨부 1]「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・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」책자 표지

발 간 등 록 번 호
11-1400377-001314-01

OPEN
연구보고 21-12

천연갱신을 통한
소나무·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



[첨부 2] 소나무·낙엽송 천연갱신 사례지 전경



<소나무 천연갱신 사례지>



<낙엽송 천연갱신 사례지>



<낙엽송 천연갱신 치수>